

「2023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 백일장 분야

작품 제목

청렴한 선거

작품 본문

4학년 봄, 청렴한 첫 선거를 하였다.

처음 반장 선거에 나가고자 결심했을 때, 걱정이 태산이었다. 나가겠다는 생각은 친구들에게 즐거운 학교생활을 선물하고 싶어서 하게 되었었다.

하지만 선거에 나가기를 희망하는 친구들이 차고 넘쳤고, 공약들도 생각지 못한 좋은 것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많은 걱정을 하게 되었다. 선거는 늘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부정선거가 일어나면 안된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뽑아달라는 단 한마디도 하면 안되고 무언가를 사주는 행위 또한 조심해야만 했다.

결국 내가 선거에서 당선될 수 있으려면 좋은 공약을 준비하는 것 밖에는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래서 내가 본래 선거에 나가고자 결심한 이유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친구들이 좋아할 수는 있지만 내가 책임질 수는 없는, 그런 공약들을 생각하게 되었다.

교실 곳곳을 둘러보며 '친구들에게 필요한 건 뭘까?' 하고 생각했지만 결국 그걸 해결하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게 친구들이 좋아할 수 있는 공약일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내 공약들은 내가 책임질 수 없는 것들로 물들어만 갔다.

그게 옳다고 생각했기에 나는 내 공약이 최고라는 오만에 빠져 헤어 나오지 못했다.

내가 책임질 수 없는 공약들이 가득 담긴 연설문을 쓰고, 외웠다. 외우면 외울수록 난 내 오만에 점점 더 깊이 빠져갔다. 선거까지 며칠 남지 않은 어느 날 밤, 나는 내 동생이 듣던 노래를 우연히 듣게 되었다. 그 노래에선 불이 나면 119 필요하다라는 가사가 담겨있었다.

이 노래를 들은 순간 나는 내가 처음에 왜 이 선거에 나가기로 결심했는지 떠올리게 되었다.

'맞아, 난 친구들에게 즐겁고 행복한 학교생활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반장이 되고 싶었어! 무조건 뽑히기 위해 내가 책임질 수 없는 공약을 발표하는 건 옳지 않은 거였어!' 그렇게 그 시간 동안 내가 빠져있던 오만에서 나는 빠져나올 수 있었다.

나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다. 우선 내가 책임지지 못할 공약은 없었다. 대신 그 자리에 내가 친구들에게 즐거운 학교생활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반장이 되고싶다는 내용의 공약들로 채워나갔다. 내가 약속할 것이고 꼭 책임지고 지키겠다는 내용과 함께 말이다.

그 동안 외웠던 연설문은 머릿 속에서 지우고 다시 쓴 내 '진정한 연설문'을 외웠다.

오만에서 빠져나오자 비로소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였다. 그리고 난 생각했다.

'작은 것부터 실천해 나가자. 그럼 모두가 날 믿고 뽑아줄 거야.' 그렇게 연설문을 다 외운 후에 나는 재치있고 기억에 남을 소품을 하나 준비하게 되었다. 그건 다름아닌 색종이였다.

색종이를 반으로 접으면 반장이 되고, 한 번 더 접으면 반의 반장이 된다. 난 이 점을 이용해 반의 반장이 되겠다는 의미를 가진 소품으로 만들었다. 실제처럼 마스크를 쓰고도 연습해보고, 인형들을 세워놓고 연습도 해보았다. 그렇게 내 첫 선거만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였다.

선거 당일, 나는 떨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학교로 등교하였다.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하였기에 설레는 마음도 함께였다. 수업을 하는 내내 심장이 떨려왔다. 드디어 선거였다. 나는 기호 2번이어서 약간의 시간이 있었다. 막판을 이용하여 한 번 더 읽어보았다. 그리고 내 차례가 찾아왔다. 앞으로 나가는 한발짝이 무거웠다. 그동안 준비해온 연설을 하였다. 다시 자리로 돌아가는 길은 훌가분한 마음에 가벼웠다.

내가 어떻게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았지만 그래도 잘 했다는 것 하나만은 확실했다.
개표가 시작되었다. 이름이 불리고 내 이름 옆에 획이 그어질 때마다 심장이 튀어나올 듯 빨리 뛰었다.
난 개표가 끝나자 어안이 빙빙해졌다. 10표를 얻어서 반장에 당선된 것이었다. 부정한 방법이 아닌 오로지 내 노력만으로 뽑혀서 더욱 뿌듯했다. 그 이후의 여러 선거들에선 당선되지 못했지만 앞으로도 그런 공정한 선거들이 더 많이 이루어지면 좋겠다.